

여성비율 · Java 관련 기술 평가 높아져

미 조지아공과대학의 제9회 WWW유저 조사에 의하면, 미국 WWW 유저 중 여성비율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불가결한 테크놀로지인 Java나 Java Script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진 반면, 대대적인 홍보 속에서 등장한 푸시기술은 별 인기를 얻지 못했으며, 인터넷상의 정보규제에 관해서는 찬성·반대가 절반씩인 현실도 두드러지고 있다.

미 조지아공과대학이 금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한 WWW 유저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매년 4월과 10월의 년 2회 실시되며, 금번이 9회째인 가장 전통있는 인터넷 유저조사의 하나이다. 조사는 웹 상의 앙케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방대한 조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도 1만 건이 넘는 회답이 있었다. 단 전체의 84%가 미국내의 것으로 조사결과는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의 최신 동향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수에 달하는 모든 조사항목을 소개할 수는 없으나, 조사 항목 중 향후 인터넷을 예측해볼 수 있는 흥미 깊은 항목 몇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여성 이용자는 41%

인터넷 이용자의 커다란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여성비율과 이용경험 1년 이내의 이용자 비율을 들 수 있다. 전체의 여성비

율은 38.7%로 1년 전의 제 7회 조사(31.3%)시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년전인 제 8회 조사(38.5%)시와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국의 응답자에만 한정시키면 여성비율은 41.2%에 달하지만 변화의 경향은 동일한 형태로 반년 전부터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제 7회는 33.4%, 제 8회는 40.5%). 지속적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일반 사회구성비와 비슷해지면서 그 템포가 지금에 와서는 보다 완만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이용경험이 1년 미만인 유저비율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1995년 당시의 조사에서는 이용경험 1년 미만의 유저 비율이 50%를 넘고 있었다. 이용자의 절반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연평균 100%의 비율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회의 조사에서는 이것이 18.4%로 저하되었다. 1년 미만의 이용자에 한정한다면, 금회의 조사에서는 여성비율이 51.7%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구구성의 여성비율인 51.1%와 거의 동일하다. 이 새로운 고객층이 인터넷 이용자 구성을 일반사회의 구성비율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 이 고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인터넷 이용자 구성비의 변화를 작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한계에 도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전체의 분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가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증가의 절대수가 반드시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의 단계에서 한계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일 것이다.

높이 평가되는 Java 관련 기술

'인터넷의 불가결한 테크놀러지는 무엇일까?' 라는 설문은 향후의 기술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질문 향으로서, 이용자 측면에서 본 흥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년간에 실제로 이용한 기술로서도, 불가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술로서도 주목도가 높은 것은 Java 또는 Java Script인 것으로 나타났다.(Java와 Java Script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기술이지만 이 조사에서는 이용자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1년간에 Java 또는 Java Script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유저는

전화 조사결과인 68.5%에서 83.4%로 증가하였다. 또한 불가결한 기술이라고 응답한 유저도 전회의 21.6%에서 29.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E-mail과 WWW를 제외하면, 다른 기술을 누르고 톱의 평가를 얻었다. 따라서, Java는 개발자만이 아니라 이용자로부터도 기술플랫폼으로서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대적인 홍보 속에서 등장했던 푸시기술은 홍보에 비해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이 기술의 이용자는 29.9%로, 오디오기술(Real Player 등) 65.0%, 차트/전자회의 61.6%에 버금가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가결한 테크놀러지는 무엇인가?' 라는 본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불과 5.3%로 이번에 갱신된 기술 리스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터넷에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기술

	제 8 회	제 9 회
전자 메일	84.3	93.3
WWW	88.7	90.6
Java/Java Script	21.6	29.7
차트/전자회의	22.3	23.9
오디오	17.1	20.9
비디오회의	6.0	7.9
전자서명/인증	5.2	7.1
인터넷 전화	4.7	6.5
인터넷 FAX	4.3	6.1
3D환경	4.5	5.8
푸시 기술	4.5	5.3

(복수응답·%)

출처 : GVU WWW User survey 98.4

정보규제에 관한 두 가지 의견

최근 들어 미국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규제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항목 중 '어떤 종류의 정보는 인터넷 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찬성과(강한 찬성과 찬성 합계)가 44.9%, 반대파가 45.4%로 거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경향이 보여짐을 알

〈표 2〉 인터넷상의 부적절한 정보 규제에 대한 의견

	강한 찬성	찬 성	상관없다	반 대	강한 반대
전 체	22.7	22.2	9.6	16.2	29.2
성 별					
여 성	28.3	26.5	10.7	15.6	18.9
남 성	19.2	19.5	9.0	16.7	35.7
연 령					
11~20세	17.9	22.8	12.0	16.3	31.0
21~25세	19.2	21.8	8.9	19.5	30.7
26~50세	22.6	22.7	9.1	16.5	29.1
50세이상	30.7	20.5	10.1	12.2	26.6
이용경험					
1년 미만	29.9	24.6	10.1	13.1	22.3
1~3 년	22.8	22.8	10.1	16.2	28.1
4년 이상	19.0	20.3	8.9	17.8	33.9

출처 : GVU WWW User survey 98.4(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찬성파가 54.8%이고, 반대파는 34.5%로 찬성파가 반대파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이용경험 1년 미만의 이용자 층에서도 여성층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 젊은 층, 이용경험이 많은 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찬성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향후의 인터넷 이용자는, 여성이나 고령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보면, 찬성파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의 정책자세는 여기에 의거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기존 인터넷 상의 바람직한 자세는 적극적인 규제 없이 자신의 책임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말하자면 인터넷 이용자는 '강한 개인'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용자 층으로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강한 개인'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인이하게 정부에 의한 관리만을 요구한다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조사결과는 찬성과, 반대파 모두,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면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조지를 요구하는 시기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